

광주형 자율주행 승부수는 ‘수요 맞춤형 차’와 ‘피지컬 AI’

획일화된 승용차 아닌 고객 니즈에 맞춘 특수 목적 차량 수요 급증
제조업 체질 개선...하청기업들 AI 기술 탑재한 ‘솔루션 기업’으로

광주가 그리는 미래차 산업 지도는 단순히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을 넘어선다. 과거의 자동차 산업이 소품종 대량생산의 수직적 구조였다면, 광주가 지향하는 미래는 ‘다품종 소량생산(HMLV)’과 ‘피지컬 AI(Physical AI)’가 결합된 유연하고 지능적인 생태계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략적 변화는 생산 방식의 혁신이다.

광주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대량생산에서 고객 맞춤형인 HMLV(High-Mix Low-Volume)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 운전석이 사라지고 차량 내부는 이동형 사무실, 병원, 물류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즉, 획일화된 승용차가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춘 특수 목적 차량(PBV)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위탁생산 체제를 갖춘 GGM을 기반으로, 광주는 팹리스(Fabless, 설계 전문) 모빌리티 제조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기업이 아이디어와 설계를 가져오면 광주 지역 기업들이 신속하게 부품을 조달하고 제작해주는 ‘모빌리티 파운드리’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팹리스(Fabless)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금형, 성형 등 지역 뿌리 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라인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유연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글로벌 틈새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생존력을 키우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정체성은 미래차 산업에서도 핵심 무기가 된다.

광주시의 마스터플랜은 ‘피지컬 AI 기반 제조 혁신 SDF(Software Defined Factory) 실증지원’을 핵심 기술 과제로 제시했다. 총사업비 850억 원 규모로 기획된 이 사업은 광주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녔다.

피지컬 AI는 모니터 속의 AI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로봇과 자동차를 직접 제어하고 상호작용하는 AI를 말한다.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이를 지역 부품 기업의 공정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AI가 실시간으로 불량률 검출하고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단순 하청 제조에 머물렀던 지역 기업들을 AI 기술을 탑재한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 시키는 것이다.

이는 자율주행차 자체가 도로 위를 달리는 AI 로봇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며, 광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체가 정점에 있고 부품사가 종속되는 수직 계열화 구조였다. 그러나 기술 융합이 필수적인 자율주행 시대에는 이러한 구조가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 광주시의 마스터플랜은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지역 앵커기업(LG이노텍, 현대모비스, 한국알프스 등)이 기술 개발의 방향성과 스펙을 제시하면, 지역 중소기업이 이에 맞춰 부품을 개발하고, 공공연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이 이를 실증·인증해주는 ‘삼각 협력’ 체계다.

앵커기업이 도메인별 역할을 맡고, 중소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R&D)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제어 기술을, LG이노텍이 인지 센서 기술을 이르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식이다.

공동연구와 성능 기반 구매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마스터플랜의 분석이다.

이는 지역 기업들이 단순 납품을 넘어 기술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다.

장밋빛 비전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높다. 현장 기업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부족과 더불어 ‘전문 인력의 부재’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도화된 SW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마스터플랜은 2035년까지의 단계별 기술 로드맵(TRM)을 제시했다.

단기(2026~2028)에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4D 이미징 레이더 등 단일 센서 기술을 확보하고, 중기(2029~2032)에는 센서 퓨전과 데이터 통합 분석 알고리즘 등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한다. 장기(2033~2035)에는 센서, 정밀지도, 디지털 트윈이 결합된 협동 인지 기술과 완전 전자화 새시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총괄하기 위해 가칭 ‘국립 인공지능 모빌리티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흩어진 R&D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과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점에서다.

진흥원이 설립돼야만 광주가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의 R&D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김민석 총리 “광주, 미래 산업 핵심 기지로 육성”

‘K-국정설명회’ 참석,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공유·광주 비전 제시
“광주는 정신적 고향...증액된 예산 미래 모빌리티 도시 사업에 투입”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광주를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서빛마루 문에 회관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를 공유하고 광주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광화문을 벗어나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 보고 자리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양부남·민형배·조인철·전진숙·박균택 의원 및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8일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김 총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조 아래,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기관차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육고를 치렀던 개인적 인연을 언급하며 광주를 ‘정신적 고향’이라면서 “광주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넘어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광주시 예산을 16%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김 총리는 증액된 예산이 AI 실증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실증 도시 조성에 투입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간의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위기가감이 감돌았던 GDP 성장률이 1%대를 회복했고 내년에는 2% 성장이 전망된다”며, “소비심리지수 역시 기준치인 100을 넘어 112를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의 신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난항이 예상됐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김 총리는 상업적 합리성과 조선업 협력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통해 국익을 방어해냈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미래 산업 전략인 ‘ABCDE(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육성 계획도 소개했다.

김 총리는 바이오와 문화, 방산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문화 산업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류의 확산을 예로 들며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강국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국정 연속성과 지역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만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김 총리는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전액국비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 훈련내용 : 디지털 일반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컴활2급준비반)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오피스 교육
	디지털 영상편집	이미지 편집, 제작 및 영상 편집 기초교육

▶ 입학안내 및 지원사항

- ✓ **지원자격** : 18세 이상인 구직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 ✓ **전형방법** : 입학선발평가
- ✓ **훈련기간** : 1개월 ~ 6개월

▶ 훈련생 특전 :

훈련비 전액지원, 중식 제공, 교재 및 실습재료 제공,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구 분	취업성공패키지(해당자에 한함)	취업성공패키지 비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0,000원	-
참여수당	최대 월 284,000원	최대 월 200,000원
교통비	최대 월 50,000원	

※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수당은 대상자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입학상담 | ☎ 062) 448-1188